



농림부

장관 주제 AI 특별방역대책회의 개최



농림부는 지난 11일 농림부에서 농림부 장관 주재로 양계관련 단체 및 업계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AI 특별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현재 전국의 방역 현황과 양계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또한 농가의 어려운 상황이 소비저하에 있다고 지적하고 농협 등 생산자단체들과 공동으로 소비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양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AI대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 양계관련단체와 AI특별 방역 활동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은 지난 1일 AI특별방역기간 돌입과 관련하여 인천 영종도 하이웨이 톨게이트에서 공항을 통과하는 내외 국인을 대상으로 방역 홍보활동을 개최하였다. 본회 최준구 회장을 비롯한 양계관련 단체장들은 이날 AI(조류인플루엔자) 홍보 전단과 치아크리너를 전달, 국경 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전달하였다. AI 특별방역 활동은 내년 2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가금육 안전성 홍보 캠페인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는 지난 10월 18~31일(15일간)동안 180명이 참여 12회에 걸쳐 가금육 안전성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닭·오리고기의 안전성" 홍보용 리플릿 5,000매를 제작하여 연구소 인근 공공장소, 가을산행지 및 철새도래지, 박람회장 등 행사장을 중심으로 홍보물을 배포하여 소



비확산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대행 최준구)는 AI(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설치·운영을 준비함으로써 농장내 질병전파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방역사들에 대해서는 독감 예방접종 및 철저한 위생관리를 실시토록 했다. 한편 방역본부는 AI(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인 '05년 11월부터 '06년 2월까지 AI(조류인플루엔자) 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예찰 및 시료채취 등 철저한 차단방역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AI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본회 최준구 회장 위원장 역임

본회를 비롯한 양계관련 단체는 지난 11월 16일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계관련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해 AI극복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집행과 간사 및 단체장의 발의를 통해 AI 극복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했다. 위원장으로 본회 최준구 회장이 선출됐으며 한국계육협회, 치킨외식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계란유통협회, 전국토종닭연합회가 함께 동참했다. 차후 비대위 활동사항으로는 대정부 활동 및 언론사 등 관련 산업을 위해 진행되는 모든 업무는 비대위 명의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시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시비대위는 매주 화요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언론사 항의방문, 각종 소비활동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12월 1일에는 명동에서 소비촉진 가두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경남 양산시 양계작목회 계란 10만개 홍보행사

지난 10월 31일 경남 양산시 양계작목회(회장 김인경)에서는 계란소비 홍보차원에서 계란 10만개(불우이웃 993판, 농림부 앞 640판, 복지부 앞500판, 과천경찰서 앞 500판, MBC 앞 700판)를 나눠주는 홍보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의 목적으로는 계란소비홍보 및 우리 양계산업의 양계인들 현재 어려운 상황임에도 타개책을 강



구함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였다. 또한 지속적인 계란소비행사 방안으로 11월 29일 여의도 국회 위원회 앞에서 계란 3만개를 배부할 예정이다.

닭고기 소비촉진 캠페인



치킨외식산업협회는 지난 2일 서울 광장동 위커피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가정의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양계·계육·오리협회와 함께 닭고기 시식회를 개최하고 닭고기 안전성과 소비촉진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시식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닭고기 안전성에 대한 소비홍보활동을 펼쳐가고 있으며, 이 자리에는 본회 최준구 회장도 참가해 시식회 자리를 빛내주었다.

닭고기 시식·판매행사 및 간담회 개최

최근 AI 외신보도에 따른 닭고기 소비감소 및 가격하락으로 인한 가금축산물의 소비촉진



홍보를 위해 열린우리당 주관으로 지난 21일 국회 앞마당에서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중심), 보좌관, 국회 사무처 직원, 가금관련단체장들이 참석해 닭고기 요리 시식과 치킨판매를 실시했으며 판매금액은 AI 비상대책위원회(회장 최준구)에 기증할 계획이다.

또한, 정세균의장실에서 농림부장관, 가금관련단체장(5명), 양계농가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촉진 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양계관련단체 AI 대비 워크샵



본회를 비롯한 양계관련단체는 지난 5, 6일 양일간 강화도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공동대응을 위한 워크샵을 가졌다.

본회를 비롯해 농림부, 농협중앙회, 계육협회, 오리협회, 계란유통협회, 토종닭연합회 회

장단과 실무진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최근 AI(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긴밀한 협조체계를 확고히 하고 정보를 수시로 교환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날 양계·오리 관련단체들은 최근 AI(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언론보도로 인해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AI(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주)축산신문사

축산인 등반대회 개최



(주)축산신문사는 지난 18일 청계산에서 축산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인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등반에 앞서 축산인들은 양계 산물 안전성에 대한 홍보행사가 대대적으로 펼쳐졌다.

136 환경포럼 긴급토론회 개최 AI 대응책 논의

환경재단(대표 지영선)은 지난 1일 한국일보사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주제를 놓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재홍 부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까지 시바 이러스가 국내에서 검출된 적이 없는데도 시에 대한 보도가 넘쳐나면서 일반인들이 이미 이병이 발생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언론이 해외에서 시가 발생할 때마다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장면 등 혐오장면을 반복해 내보내 주부들이 지나치게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도 감염된 조류를 직접 만지는 축산업 종사자 등 접촉밀도가 높은 이들만이 감염됐다"고 덧붙였다. 천병철 교수는 한 세기 동안 인류의 신종 독감은 2~3차례 발생하고 있는데 AI(조류인플루엔자)도 예외가 될 수는 없지만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간다면 어려움 없이 대처를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AI 재앙인가? 기우인가? 공청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박재환 의원은 지난 11월 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 재앙인가? 기우인가?"라는 제목으로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이날 토론회는 'AI(조류인플루엔자) 대유행의 전망과 대응'을 주제로 김우주 교수(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



내과)가, 'AI(조류인플루엔자) 전파 및 예방'을 주제로 류영수 교수(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AI(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경제적 피해계측'을 주제로 최윤상 수석연구원(국민경제연구소)이 각각 발제자로 나와 AI(조류인플루엔자)의 역사, 발생기전, 피해, 전망 등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생산자를 대표로 토론에 나선 한희 사장(풍한농장)은 지난 2003년 발생한 AI(조류인플루엔자)를 조기에 박멸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라 언급하고, 차단방역과 감염농장의 살처분, 정부의 관리가 따르는 미감염농장의 백신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검역원의 시설과 인원확충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AI 관련 인체 예방백신 세미나 개최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난 11월 8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최, 충남대학교와 세신주식회사 후원으로 AI(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본 세미나에서는 수의학과 서상희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예방 백신관련 연구 성과 보고와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심도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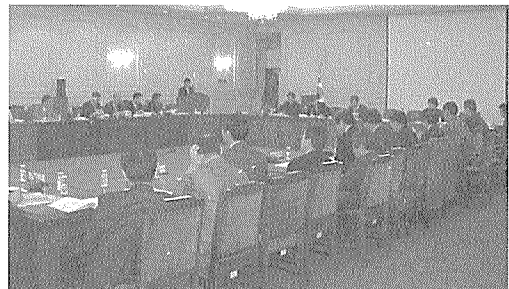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미나에 앞서 서상희 교수에게 과잉보도로 인한 양계농가들의 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였으며, 서상희 교수는 공식적인 사과후



AI에 대한 신속한 대비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 백신개발 필요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발표하였다.

농림부 항생제 사용 절감 연구모임



농림부는 지난 11월 8일 농림부에서 '항생제 사용 절감 연구모임'을 개최하였다.

이번 이문한 교수(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위원장을 축으로 수의사, 축산 전공자, 업계, 사료회사, 동물약품업계,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보인다.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는 계속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식육 내 잔류문제, 내성균 주 출현문제 등 축산물 안전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토론 및 대책방안을 위한 자리였으며 추후 2006년 9월까지 5차 회의를 거쳐 최종 보

고서 작성 및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지난 2004년 10월 25일 '항생제 사용 절감방안 검토회의' 시 '항생제 사용 절감을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운영키로 한 바 있다.

**한국가금학회
학술발표회 및 제22차 정기총회**



지난 11월 18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한국가금학회 학술대회 및 제22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학술발표회는 양계분야 초청특강, 학술발표회, 포스터 발표로 이루어졌다. 이후 제 22차 정기총회에서는 강창원 건국대학교 교수가 2006년 한국가금학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양계산업 공로자들에게 학회상 시상 및 감사패 증정식이 있었다.

공 적 상	교육분야 : 하정경(경상대)
	봉사분야 : 박영인(한국자조금연구원)
	행정분야 : 조병임(농림부)
학 술 상	이상진(축산연구소)
공 로 패	남기홍(대구대), 김상희(축산연구소)
차세대학술상	김성권(건국대)
감 사 패	한국사료협회, 농협사료, 미국곡물협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계협회 중계분과위원회, 독비위농장, (주)마너커
	한국양계(주), (주)삼화육종, 전국토종닭연합회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양계산업 국제 심포지움 개최**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회의실에서 2005년 11월 25일 오후 2시 전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에서 주최하고, (주)하림·(주)화성산업·농협사료·(주)신명·(주)천하제일사료·(주)퓨리나사료·(주)아성·농협중앙회(전북)·(주)대상사료가 후원하는 '동북아 양계산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양계산업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양계산업의 발전이 전북지역의 발전이며, 또 지역경제의 발전이 되는바, 양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지한 심포지움이 진행되었다.

**(사)대한영양사협회
18대 회장에 곽동경 교수 선출**



◀ 곽동경 회장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양일선(梁一仙)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제18대 임원선출을 위한 2005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11월 19일(토) 전국 대의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제18대 회장으로 곽동경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를 선출하였다. 또 2명의 감사와 19명의 선거직 이사를 선출하였다.